

인공지능(AI) 시대와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포스트크리스텐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김영록 침신대학원 석사졸업/ 새날교회 전도사

ABSTRACT

In the AI and Post-Christendom era, functional views of 'Imago Dei' fail. Drawing on the 1st-century church and Buber/Levinas, this study argues true humanity is preserved through loving, relational communities.

Keywords: Christian Worldview, Artificial Intelligence (AI), Post-Christendom, Doctrine of Creation, Imago Dei, Ontology, Eschatology, Community of Hospitality

I. 서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낸다. 같은 세상을 다르게 보고, 해석한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관점의 독특성은 그 관점의 틀로 구체화되는 ‘창조, 타락, 구속’에 있다(Wolters, 1985: 75).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심을 따라 회복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여 살아내고 있다는 의미이다(Goheen & Bartholomew, 2008: 151). 화란과 북미에서 기독교세계관운동은 인간 이성의 발달이 상대주의를 강화시키며 과학적 사실과 신앙의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세상의 세계관에 대항하여 나타났다(Naugle, 2002: 10). 이때 기독교세계관이 말하는 ‘창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근대주의’의 이원론이 교회의 신앙을 주관과 신비로 치부할 때, 창조는 그에 대응하여 총체성을 강조한 일원론을 지켜낼 정초가 되기 때문이다(Pearcey, 2006: 165).

그렇기에 기독교세계관운동에서 ‘창조’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지금까지 강조되어왔다. 실제로 북미의 학자 낸시 피어시는 진리를 파편화시키는 세계관에 맞서 유일한 진리로 기독교세계관을 말할 때, 세계의 기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진화론’이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심도있게 다룬다(Pearcey, 2006: 323-6). 이 창조의 믿음을 지켜내야 신앙을 주관과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는 자연주의와 다윈주의의 이원론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운동의 역사 속에서 ‘창조’는 강조되어왔고, 세계는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권이 회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박태현, 2020: 71). 그러나 창조에 대한 과한 강조는 피조세계에 대한 긍정을 지나치게 한 나머지, 모든 악을 ‘인간의 동기, 즉 마음의 방향’이 타락했다는 논지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창조의 규범성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피조세계의 현상 유지를 정당화하는 보수화의 위험을 낳았고, 이는 곧 타락한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약화시켰다(김기현, 2024: 75-6). 이러한 문제제기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으로 하여금 살롬을 회복하는 실천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현상 유지를 넘어 체제변혁까지 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두 가지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의 가속화된 발전이다. 오늘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창조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운동의 논의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기존의 논쟁은 ‘세계의 기원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진화를 대답하며 기독교를 주변부로 밀어냈고, 이에 기독교세계관은 진화론을 기초로 한 세계관은 세계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일관성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만이 세계를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는 ‘총체적 세계관’이라고 주장했다(Schaeffer, 1995: 756). 그러나 오늘날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창조론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다. 과거 1950년 튜링 테스트(Turing Test)가 기계와 인간의 텍스트적 구별 불가능성을 시사했다면,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며 그 여파를 인간 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심지어 인간은 이제 AI에게 결정을 위임하며, 의존하는 경향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박영진, 2026: 128). 이처럼 인간이 기계화되고, 기계가 인간화되는 변화의 흐름은 기존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을 상대적으로 주변화시키며, 논의의 중심을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동시킨다. 즉, 기독교세

계관은 더 이상 창조를 '기원'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세계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방어하는 데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존재론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과 설득력 있는 전달을 요구받게 되었다.

둘째,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도래이다. 교회를 주변부로 밀어두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맞이하여, 기독교적 가치가 더 이상 사회의 보편적 전제로 통용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기독교세계관의 적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 가치가 더 이상 보편적 전제로 통용되지 않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AI가 촉발한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경적 창조론이 그저 '교리적 선언'에 머물러서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의 영역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창조론적 접근이 요구된다.

요약컨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도래를 마주하여 기독교세계관이 정초로 삼아 강조하는 창조 중심의 운동은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한계를 마주하고, 그 설득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는 중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AI 시대가 묻는 '인간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의 교리를 단순한 '태초의 기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종말론적 완성'과 '회복'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논자는 신학적 측면에서 창조론과 종말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그간 기원 논쟁에 매몰되어 있던 창조 담론을 인간성 연구를 위한 역동적 존재론 담론으로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담론은 결국 AI 기술이 초래한 인간 가치의 위기에 대해 교회가 독단적 선언을 넘어 보편적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변증적 정초를 제공할 것이다.

II. 본론

1. AI시대, 기독교세계관의 창조가 가지는 한계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전통 내에서도 루터와 달리 칼빈은 '창조'를 강조하는데, 이는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대상이 교회를 넘어 피조세계 전부였기 때문이다(Calvin, 2003: 238-54 ; 조성표, 2014: 51). 이러한 칼빈의 강조는 19세기 유럽을 휩쓴 진화론을 기초로 공고해진 근대주의가 기독교를 개인의 내면과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내려고 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을 통해 재해석되어 본격적으로 꽃핀다(Kuyper, 1971: 22-3).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영미권으로 확산되어 각각 개혁주의 계열, 근본주의 계열, 복음주의 계열로 분화되어 영향을 끼치고, 국내에까지 그 운동의 영향을 끼쳐왔다(김영록, 2025: 21-25). 이러한 확산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근대주의의 공격을 문제로 제기했던 한계로부터, 후기 근대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패러다임의 이행을 요구받는다. 이는 근대주의를 모태로 태어난 기독교세계관이 근대를 대표하는 계몽주의적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하여, 서구의 식민지적 사고방식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날카로

은 지적을 동력으로 삼고 있었다(Naugle, 2002: 332-4).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창조-타락-구속’의 틀에서 창조’가 가진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반성이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근대의 위협 앞에서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의 선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특별히 월터스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의 삶에는 창조질서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질서 안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Wolters, 1985: 25). 따라서 타락한 창조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선하심을 우주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며, 참여하게 된다(Wolters, 1985: 72). 이러한 그의 주장은 본래 삶의 모든 영역의 구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두어, 방향이 왜곡된 것을 회복하기를 강조한다. 그러나 후기 근대주의에 이르러 계몽주의가 기독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두는 형세에서 모든 종교들이 경쟁하는 시장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기독교세계관은 ‘창조’를 ‘구속’과의 관계 안에서 살피기 시작한다. 마이클 호튼은 이러한 생각을 잘 나타내준다. 창조의 교리를 통하여 세상 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변혁과 참여를 간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동시에 구속의 교리를 강조하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 ‘구별됨’을 역설한다(Horton, 2010: 275; 김기현, 2022: 26). 이는 기독교가 근대의 문제제기와 다르게 타종교와 시장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문제제기로의 전환이었으며, 이에 따라 창조의 기능이나 범주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세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두는 것부터 시작하여, 근대의 이성으로부터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창조’를 사용하였고, 또 후기 근대의 다원주의가 만들어낸 ‘종교시장’ 안에서 ‘창조를 구속’과 결부시켜 공론의 장을 지켜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는 인식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본질 자체를 흔드는 존재론적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란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의 분야를 의미한다(Lennox, 2020: 17). 이는 구체적으로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인간 행동을 모방한 기계를 고안하려는 시도이며, 인간의 추리-사고 과정을 모델링하며 이해하려는 시도 모두를 포괄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기술발전이란 곧 기계가 인간을 닮아가는 방향성에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기계를 통하여 단순 연산을 넘어, 인간의 다목적 사고(AGI)를 지향함을 설명하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기술이 ‘머신러닝’이다. 머신러닝이란 ‘규칙을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터에서 규칙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이고, 딥러닝이란 뉴런의 기능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을 가리킨다(McCarthy, 2007: 19-22). 그 결과, 우리는 인간만의 고유한 창조적 특성이라고 여겼던 이성과 언어, 추론의 영역을 기계에게 모방당한 것을 넘어,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이미 20세기 중반 튜링 테스트로부터 우려되어 왔는데, 최근 대형언어모델인 LLM이 등장하면서 그 우려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심지어 이제 우리는 인간과 기계가 이미 얹혀 있어, 인간 저자를 낭만적으로 그려내는 것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하기까지 하였다(Craig & Kerr, 2021: 46).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인간 고유의 창조적 역량이 기계의 연산으로 환원됨으로써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대리자적 지위마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요컨대, 이러한 기술의 발전 앞에서 기독교세계관운동의 ‘창조’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론

적인 논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의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이원론을 부추기는 이성주의와의 다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세계의 기원과 합리적 설계를 증명하는 데 힘을 쓰고, 후기 근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시장 안에서 생존하기 위한 구별된 삶이라는 실천적 윤리와 내러티브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AI기술을 통하여 기계가 인간의 합리성을 모방하는 경향에 대하여 인간 존재의 고유성을 방어할 논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왔다. 결국,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고 대체해 나가는 기술의 발전 앞에서, 기존의 기독교세계관이 말하는 ‘창조’는 기원 논쟁이나 인식론적 우위를 점하려는 과거의 패러다임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무엇이 더 설득력 있는 진리인가’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고유성을 창조의 관점에서 어떻게 새롭게 설명해 낼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2. 포스트 크리스텐덤과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1) 포스트크리스텐덤과 인공지능 시대의 창조교리

포스트크리스텐덤은 이러한 과제 앞에서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제기해야 할 문제와 대안이 견지해야 할 방향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에서 기독교가 지배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를 뜻하는 포스트크리스텐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Murray, 2004: 19).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는 필수와 의무가 아니라 기호와 선택의 대상이다. 둘째,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특혜의 기초가 아니라, 방어해야 할 ‘가치’가 되었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기독교는 윤리와 정치의 국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가 되었다(김영록, 2025: 49-50).

이러한 특징은 기독교세계관 운동으로 하여금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전략과 방법, 그리고 실행력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재고하도록 요구한다(김영록, 2025: 55). 예컨대, AI의 기술발전이 인간의 본질을 물을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교회의 일반적인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즉, 교회의 명제적 선언은 공공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했으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진정한 ‘인간됨’의 본질을 묻는 오늘날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뼈아픈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물론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 할지라도, 기독교세계관이 견지해 온 ‘창조’ 교리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기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설명할 수 있는 기초를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AI의 기술발전이 위협하는 인간의 고유성에 대하여 교회는 결국 창조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어야 한다(Bavinck, 2011: 661-5). 그러나 포스트 크리스텐덤은 그 ‘창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던진다. 창조를 다루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강조’ 혹은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에서 교회는 인간을 기능과 효용으로 평가하는 기술 중심적 세계관에 아무런 방어막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인간은 AI 앞에서 그 존재론적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심각한 취약성에 처하게 되었다(장동민, 2019: 110). 따라서 오늘날의 기독교세계관은 맹목적인 교리적 선언을 넘어, 기능주의를 압도하는 인간 본연의 고유성을 공격 담론

의 장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창조’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받고 있다.

(2) 창조교리와 하나님의 형상

실제로 기존 기독교세계관 운동, 특히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하나님의 형상’ 이해는 인공지능 시대와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정황 속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창조를 하나님의 선한 법으로 이해하여 ‘이원론’을 배격하고, 총체성을 강조하는 일원론을 지켜내는 알버트 월터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Wolters, 2007: 67, 131).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사실은 창조를 발전시키는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청지기직과 관련된다(Wolters, 2007: 78-81). 월터스에게 인간의 고유성이란 창조 세계의 구조를 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사명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잃은 ‘명제적 선언’에 불과하다. 나아가 데이터 처리와 연산에서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피조 세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열린 오늘날, 이와 같은 기능주의적 사명 중심의 형상론은 존재론적 방어막으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한다. 이는 사실상 본서가 ‘기독교철학’의 전제를 다지는 목적 아래에서 저술되었다는 한계로도 이해된다(Wolters, 2007: 181).

이와 유사하게 지적이고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창조를 변증한 프란시스 쉐퍼는 우연과 맹목적 물질에 기원을 두는 자연주의는 인간의 의미추구와 인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창조를 강조한다(Schaeffer, 1995: 756). 이때 하나님의 창조는 ‘총체적 진리’를 다룰 수 있는 정초를 제공한다(Pearcey, 2006: 165). 그 맥락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 자체가 자연주의를 논파하는 지적 무기가 되었다(손봉호 외, 2005: 105-6). 그러나 이러한 이성 중심의 변증은 기독교적 합리성이 세속 철학을 완벽히 굴복시킬 수 있다는 근대성의 전제에서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경향성은 지나친 승리주의로 치달아 기독교세계관을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만들기도 한다(전성민, 2025: 1238).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과 합리성으로 강조하는 주장은 인공지능의 발달 앞에서 무색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는 쉐퍼의 입장 역시 적대적인 세계관과의 전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합리주의로 기울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손봉호 외, 2005: 119).

마이클 고헨과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는 기독교세계관을 파편화된 교리나 승리주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성경을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거대한 이야기로 창조, 타락, 구속을 다룬다(Goheen & Bartholomew, 2008: 93). 이러한 전환은 기존 기독교세계관의 전제에 계몽주의적 낙관이나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루어진다(Naagle, 2002: 333; 전성민, 2025: 1014-5). 이들은 창조를 성경이 가진 구속과 복음 이야기의 배경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성경 이야기가 결국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지향한다고 보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사실은 종교성과 공동체성을 부각한다(Goheen & Bartholomew, 2008: 114). 이와 같은 내러티브적 전환과 그에 따른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해는 훌륭하지만, 인공지능이 내러티브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생성하는 시대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유성을 증명할 핵심인 ‘종교성’과 ‘관계성’을 삶의 실천이 배제된 텍스트적·서사적 차원으로만 환원할 경우, 언어를 연산

하여 완벽한 서사를 생성해 내는 LLM 앞에서 그 고유성을 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기존 기독교세계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시해온 인간의 기능적 통치력,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서사를 기초로 한 종교성과 관계성은 모두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효율성과 시뮬레이션 능력 앞에서 고유성을 드러내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Kilner, 1996: 73). 덧붙여 이러한 한계는 사실상 기독교세계관이 가진 크리스텐덤의 잔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 잔재는 두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교회가 여전히 사회의 중심부에서 권력과 제도, 혹은 지적 우위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변혁하려 하는 ‘고지론적 승리주의’이다(김영록, 2025: 69). 둘째, 기독교적 서사를 삶의 실천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소비하려는 크리스텐덤적 관성이다. 이를 간과할 경우,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로 전달하면서도 결국 그 대안들을 힘과 지배의 논리로 소모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김영록, 2025: 70).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세계관은 어떻게 지적 우월성이나 사회적 특혜에 기대지 않고도, 기술 지배 시대에서 창조를 재해석하여 인간의 참된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크리스텐덤의 잔재나 사회적 특혜가 전혀 없던 철저한 주변부 집단인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정사와 권세에 저항하는 1세기 교회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

(1) 기술의 자율성과 1세기 로마

일찍이 하워드 스나이더는 21세기의 서구 사회가 1세기 그리스-로마 사회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통찰을 준 적 있다(Snyder, 2006: 13). 그러나 동시에 1세기와 21세기 서구 교회는 다르다. 서구 교회는 크리스텐덤의 말기를 살고 있고, 보다 넓은 세계화를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컴퓨터화된 기술의 등장이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나이더는 이 시대에 복음을 담을 새 포도주 부대를 제안한다(Snyder, 2006: 32-3). 이처럼 차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창조교리는 ‘1세기 교회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환원주의로 방향을 둘 수는 없다. 그러나 교회가 마주하는 세상의 양상과 정도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위협하는 정사와 권세는 동일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형상을 기능으로 전락시키는 위협에 직면한 오늘날,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1세기 교회의 존재 방식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결코 시대착오적이거나 무리한 시도가 아니다. 그 근거는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이 단순한 과학적 도구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권세’이자 시대정신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수단 및 방법의 총체성’이자 인간 활동 ‘전반’에 적용되고, ‘최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진다는 특징을 들어 강력한 권세라고 설명한다(신광은, 2010: 96). 그리고 그 권세는 인간을 기계화시킨다(신광은, 2010: 127). 기계가 인간이 되고, 인간

이 기계가 된다는 이 시대의 이면에는 결국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기능으로만 치부하는 정사와 권세가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기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치 중립적 도구, 혹은 선한 문화 명령의 일환으로 변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라인홀드 니버와 밥 하웃즈바르트 등의 학자들은 정당하고 선한 목적 자체도 우상화될 때, 파괴적인 이데올로기, 즉 ‘구조적 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김기현, 2024: 93-4) 그리고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기술혁명은 그 자체로 특정한 방향성을 강요하는 권세로 작용할 수 있다.

20세기 말을 살았던 엘룰의 통찰은 21세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기계화되는 현실을 넘어 1세기 로마 제국의 시대정신과도 맞닿아있다. 신약학자 데이비드 드실바는 1세기 로마제국과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가치 중 하나로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자선 제도라기 보다는 제국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통제 장치였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수혜자에게 호의를 베풀 때, 수혜자는 그에게 충성과 명예를 바치며, 거래하게 된다(DeSilva, 2019: 135). 즉, 로마 사회에서 선물과 은혜라는 표현은 항상 ‘보답’을 요구하는 철저한 교환 경제의 일부였다는 의미이다(Barclay, 2021: 45). 따라서 1세기 그레코-로만의 문화에서 ‘인간’이란 교육을 받은 남성 시민으로 제한되었다. 그 이하로는 모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심지어 가족의 여성과 자녀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가정마저도 친밀함의 공간이 아니었다(박영호, 2021 : 76). 즉, 로마 제국이 인간의 가치를 제국에 대한 효용성으로 비인격화시켰고, 인공지능시대는 알고리즘의 데이터와 연산의 도구로 인간을 환원시킨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방법과 정도는 다르지만, 인간을 기능으로 여기는 같은 정사와 권세를 배후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요컨대, 1세기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교육받은 남성 시민만이 인간으로 대우받았던 것처럼, ‘기능과 능력’ 위주로 규정된 하나님의 형상은 계급과 후원 시스템 아래 억눌린 모든 이를 구원할 보편적 복음이 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21세기의 기술 지배 사회 역시, 기계가 인간의 이성과 창조성을 능가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기능성 위주로 설명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더 이상 인간의 존재론적 위기에 충분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

(2) 1세기 교회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1세기 교회는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놀랍게도 1세기 교회는 제국의 기능주의적이고, 호혜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정사와 권세의 위협 아래에서 이상하고, 낮은 존재로 체제전복의 가능성을 지닌 공동체가 되었다(Gupta, 2025: 18). 로마가 인정한 종교들이 신들과 철저한 거래 관계를 맺었던 것과 달리, 교회는 조건 없는 상호 신뢰와 환대를 나누었다. 더욱이 이러한 공동체의 결속은 당시 종교의 필수 요소로 여겨졌던 신전, 사제, 신상이라는 외형적 조건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유지되었다.(Gupta, 2025: 50).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신들을 거래관계로 숭배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였던 로마인들에게 무신론자로 여겨질 정도로 독특했다(Gupta, 2025: 42). 초대교회가 이토록 기이한 환대와 신뢰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근처에

는 제국의 서사와 철저히 충돌하는 독자적인 '창조교리'와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① 1세기 교회가 믿는 창조

로마 제국에서 창조는 '지배체제를 수호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었다(Carter, 2006: 83-4). 그러나 놀랄 필요가 없는 까닭은 고대 팔레스틴 지역을 둘러싼 신화들 역시도 대부분 그러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쉬는 새해 축제의 넷째 날마다 반복하여 낭송되었는데, 함무라비 대왕의 바벨론 제국 건설과 병합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으며, 심지어 인간의 노동력 착취마저도 정당화시키기도 한다(Pritchard, 2016: 90 ; 이창을, 2007: 15). 그러나 창세기가 제시하는 에덴에는 노동력을 바쳐야 하는 신전, 계층의 차이를 보이는 사제,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의 제사와 같은 도시문명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신광은, 2022: 102).

이러한 창조를 1세기 사도들은 기원논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는 신화 자체가 세계를 설명하는 일종의 과학으로 기능했기에, 오늘날처럼 창조 신앙이 진화된 등 세속의 기원론과 경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이상환, 2025: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교회는 다신교 사회에서 진짜 창조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물론 이들은 그 사실을 믿고, 선언했으나 기원논쟁에 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제국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왕,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창조교리를 전개해나간다. 대표적인 예시는 골로새서 1장 15-20절로 창조는 그에게서 시작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루어진다(Walsh & Keesmaat, 2004: 83-4). 이와 같이 창조의 기원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은 당시 신의 아들로 추대받던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이자 도전이었다(Carter, 2006: 87).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의 창조교리는 다신론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황제숭배를 정조준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조세계의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선포로 제국의 비인격적인 정사와 권세를 전복시킬 의도를 가진다(Walsh & Keesmaat, 2004: 91-93).

이와 같이 창조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될 때, 창조는 기원 논쟁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묻게 된다. 그리고 이는 창조교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몰된 명제로 만들지 않고, 로마의 낡은 질서를 뚫고 들어오는 새로운 창조와 회복으로 향하는 동력이 되게 만든다. 실제로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만물을 그와 화해하게 하심"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대안적 종말론으로 폭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기초로 이루는 평화임을 주장한다(Walsh & Keesmaat, 2004: 101). 이때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에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고, 완성될 회복을 현재로 앞당겨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기초는 곧 창조신앙에 있다(Walsh & Keesmaat, 2004: 154-6).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즉, 로마 제국이 신분, 능력, 유용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옛 질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끝났다는 것으로, 창조의 교리가 기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회복과 대안 공동체의 형성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Wright, 2016: 1287-8).

② 1세기 교회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

근동에서 제국을 누렸던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 로마에서도 ‘신의 형상’은 왕과 권력자에게 독점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이나, 후원자의 명예를 드높여줄 기능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Middleton, 2005: 213).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사실은 강력한 체제전복의 메시지였다. 실제로 1세기 교회가 모든 분열의 담을 허물고,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고 하나 됨을 지향할 수 있던 근거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Gupta, 2025: 237). 그러나 우리가 창조를 종말론과 결부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창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역시 보다 역동적인 동력을 얻게 된다.

놀랍게도 바울은 창조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전개해나간다. 실제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언한다.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오직 참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어 골로새서 3장에서는 땅과 대조되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선언된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와 같은 정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라는 동적 개념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Walsh & Keesmaat, 2004: 172-3).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형상의 본체로, 로마의 우상숭배를 위한 동전, 신전, 모자이크 등의 형상들을 무너뜨린다(Gupta, 2025: 61). 이때 교회 공동체는 예배와 감사로 그를 본받고, 그와 같이 변화해 나간다(Wright, 2016: 406). 요컨대, 제국의 문제가 분열과 폭력, 그리고 비인간화를 정당화시키는 우상숭배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안은 하나님 형상의 갱신이었다(Walsh & Keesmaat, 2004: 172-3). 그리고 이 갱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력을 다해 이루어야 할 명령이기도 했다(Ladd, 2016: 172).

1세기 로마의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황금의 시대로부터 멀어져가는 쇠퇴, 즉 과거를 지향하는 선형적 시간관이었고, 유대교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한다는 점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선형적 시간관이었으나, 순환되는 절기들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집중되었다(Gupta, 2025: 154, 7). 그러나 1세기 교회는 독특한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며 ‘다시 오심’에 집중한다(Gupta, 2025: 157-64). 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는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창조와 결부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관계의 기초이자 관계 그 자체로 믿었다(Kilner, 1996: 82).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통치를 위임받은 왕적 제사장 직분이라는 점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만 하는 소명을 감당해야 했다(Middleton, 2005: 88-90). 이때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자선 단체를 넘어서 ‘회복된 창조 질서의 전초기지’로 비인간화를 목적하는 정사와 권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급진적 하나님 형상 공동체로 자리매김한다(Walsh & Keesmaat, 2004: 172-4).

(3)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에 재해석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중심으로 형성된 1세기 교회의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하나님 형상’ 이해는, 안타깝게도 사변적 기원 논쟁이나 세계관의 인지적 변증에 집중했던 기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계가 인간의 지적 고유성을 모방하고 위협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러한 관계적 형상론은 기계가 결코 환원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고유성을 수호하는 강력한 대안이 된다. 다만, 교회가 국가와 사회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물러난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정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이 관계적 창조 신앙을 세속 사회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동반해야만 한다.

1세기 교회의 이러한 관계적 창조신앙을 현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공공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우리는 부버의 관계철학과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에서 유효한 도구를 발견할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이해는 유대교 신비주의 중 주류인 하시디즘에 대한 입장차이에서 명확해진다. 유대교 신비주의는 긴 박해의 역사 속에서 토라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면서 발생한다(최인식, 2011: 242). 그러나 폴란드에 거주하던 대규모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 대규모 반란으로 발생한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나 신과의 합일을 이룰 수 있다는 하시디즘이 시작된다(박흥규, 2012: 101). 이때 정통과 경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대하던 이들로 미트나그딤이 나타나 반목을 시작하게 된다(최인식, 2011: 277). 마틴 부버는 하시디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로 ‘나-그것’이 아닌 ‘나-너’로 규정되는 형태의 세계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Buber, 2000: 15). 자연과 타자를 비인격적 대상으로 환원시키는 ‘나-그것’의 태도는, 인간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도구로 비인간화하는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지배적 권세와 정확히 일치한다. 부버는 이러한 관성을 이겨내기 위하여 ‘영원한 너’와의 궁극적 관계를 제안한다(강성현, 2020: 128). 한편, 미트나그딤에 속한 자가 레비나스는 서구철학의 존재론과 하이데거의 존재신학이 주체성과 동일성이 전체주의적 폭력을 일으킨다고 지적하며 무원리성을 제안한다(심상우, 2011: 142). 그는 이성을 통한 신의 개념 규명을 거부하고, 오직 연약한 ‘타자의 얼굴’이 발하는 부름을 통해서만 신적 계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심상우, 2011: 144-5). 그렇기에 레비나스에게 인간의 주체성은 홀로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무한한 윤리적 책임을 떠안는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확립된다(심상우, 2011: 160).

이 두 철학자의 사유는 타자를 통제와 기능의 대상으로 삼는 기술 기능주의를 논파하며, 앞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고정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이타적인 관계’로 이해했다는 사실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즉, 기독교 세계관은 부버와 레비나스의 철학적 언어를 경유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배타적인 ‘교리적 명제’가 아니라 타자를 향한 윤리적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적 생명력’으로 세상에 제시할 공공의 언어를 획득하게 된다. 효율성과 연산 능력이 지배하는 AI 시대 속에서, 교회가 명제적 선언을 넘어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몸으로 살아낼 때, 이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변증이 될 것이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기독교가 사회적 주변부로 밀려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이중적 위기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인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교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다. 과거 기독교 세계관은 세속주의에 맞서 세계의 ‘기원’을 변증하고, 이성과 통치력이라는 인간의 ‘기능적 우월성’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기계가 인간의 지성과 서사 능력을 모방하는 AI 시대에 이러한 기능적 접근은 인간의 존재론적 고유성을 방어하지 못하며,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에서 교회의 명제적 선언은 더 이상 공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논자는 인간을 철저히 효용 가치로 환원했던 1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 질서와 오늘날의 기술 환원주의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창조를 단순한 기원 논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 새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을 정적인 소유가 아닌 타자와 연대하는 ‘역동적 관계’로 재해석하여 제국에 저항하는 대안 공동체를 형성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1세기 교회의 관계적 창조 신앙을 현대의 공공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 마르틴 부버의 ‘나-너’ 관계와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방법론적 도구로 차용하여, 지적 변증을 넘어서 ‘관계적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의 변증 패러다임 전환이다. 본 논문은 방어적이고 사변적인 ‘기원’ 중심의 창조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 회복’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켰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이 과거에 얽매인 교리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갱신하는 실천적 동력임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성에 대한 존재론적 대안 제시이다. 기계가 인간의 ‘기능’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본 연구는 인간의 참된 본질이 기능이 아닌 타자를 향한 환대와 사랑이라는 ‘관계성’에 있음을 역설했다. 이는 기술 지배 사회의 비인간화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철학적·신학적 방어막을 제공한다. 셋째,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공공 담론 형성이다. 권력을 상실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진리를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부버와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을 경유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배타적 종교 언어가 아닌 ‘보편적 윤리와 관계의 언어’로 번역해 냈다는 실천적 가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의의를 기초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창조 교리 변증은 비신자를 향한 ‘기원’ 중심의 소모적 지적 논쟁에서 벗어나, 신앙 공동체 내부를 향한 ‘정체성 형성’과 교육으로 그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에서 교회와 세속 사회는 더 이상 동일한 인식론적 토대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화론 대 창조론과 같이 우주의 물리적 기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세상을 지적으로 굴복시키려는 근대적 시도는 오늘날의 공론의 장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독교를 비합리적이고 배타적인 고립 집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둘째,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종교적 언어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공공의 영역에서 인격적 환대와 연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소통과 관계의 플랫폼’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AI 기술이 촉발한 극단적 효율성과 기능주의 속에서 소외되거나 유용성으로만 평가받는 이들,

특히 미래의 불안과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 '나-너'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게 하는 대안적 공간이나 비영리적 형태의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세력을 확장하려는 지적 담론이나 권력적 우위의 확보에 머물지 않고,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 속에서 타자를 향한 보편적 윤리의 언어를 몸소 살아내는 실천적 차원으로 승화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역사적·기술적 맥락의 간극이다. 1세기 로마 제국의 억압적 후원 체제와 21세기 AI 알고리즘의 지배 구조가 구조적 유사성을 띠고 있음은 논증하였으나, 자율적이고 비물질적인 '기술 권세'가 가지는 현대적 특수성을 사회학적·공학적으로 충분히 분별하고 해부하는 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었다. 둘째, 두 철학자의 사상에 대한 신학적 검토의 부족이다. 1세기 바울의 기독교적 형상론을 유대 신비주의와 현상학에 뿌리를 둔 부버 및 레비나스의 철학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철학적 전제들을 기독교 조직신학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 무리 없이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치밀한 신학적 검증이 추가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위기에 직면한 기독교 세계관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1. 단행본

- Carter, W. (2006). *The Roman Empire and the New Testament: An Essential Guide*. Abingdon Press.
- Kilner, J. F., Miller, A. B. & Pellegrino, E. D. (Eds.) (1996). *Dignity and Dying: A Christian Appraisal*.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Middleton, J. R. (2005).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Brazos Press.
- Murray, S. (2004). *Post-Christendom*. Paternoster.
- Naugle, D. K. (2002). *Worldview - The History of a Concept*. William B. Eerdmann Publishing Company.
- Walsh, B. J. & Keesmaat, S. C. (2004). *Colossians Re:mixed: Subverting the Empire*. IVP Academic.
- Worters, A.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 Wright, N. T. (2013).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2 vols.* Fortress Press.

- 박영호 (2021).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IVP.
- 박태현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다함.
- 박홍규 (2012). **마르틴 부버**. 홍성사.
- 손봉호 외 한국 기독교 철학회 (2005).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IVP.
- 신광은 (2010). **자끄 엘뤼 입문**. 대장간.
- 신광은 (2022). **하나님 나라가 땅으로 임할 때**. 고백 아카데미.
- 이상환 (2025). **인간이 된 신 : 예수님의 성육신 낮설게 읽기**. 학영.
- 장동민 (2019). **Post-Christendom시대의 한국 기독교**. 새물결플러스.
- 전성민 편 (2025). **한국 기독교세계관 READER**. IVP.
- 최인식 (2011). **예수와 함께 걷는 유대교 산책**. 예루살렘 아카데미.

2. 번역서

- 강승일 외 5인 역 (2016). **고대 근동 문학 선집**. Pritchard, J. B. (1950).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CLC.
- 김기찬 역 (1995). **기독교 사회관**. Schaeffer, F. A. (1982).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Vol. 5: A Christian View of the West*. 생명의 말씀사.
- 김세현 역 (2019).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성경읽기 : 명예, 후원, 친족, 정결 개념연구**. DeSilva, D. A. (2000).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Unlocking New Testament Culture*. 새물결플러스.
- 김천배 역 (2000). **나와 너**. Buber, M. (1923). *Ich und Du*. 대한기독교서회.

- 김형태 역 (2021). **바울과 은혜의 능력**. Barclay, J. M. G. (2020). Paul and the Power of Grace. 감은사.
- 박영남 역 (1971). **칼빈주의**. Kuyper, A. (1899). Lectures on Calvinism. 세종문화사.
- 박장훈 역 (2025).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Gupta, N. K. (2024). Strange Religion: How the First Christians Were Weird, Dangerous, and Compelling. IVP.
- 박태현 역 (2011).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Bavinck, H. (1904). Christelijke wereldbeschouwing. 부흥과개혁사.
- 원광연 역 (2003). **기독교강요**. Calvin, J. (1559).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원광연 역 (2016). **하나님 나라**. Ladd, G. E. (1959). The Gospel of the Kingdom.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윤석인 역 (2010).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Horton, M. S. (1995).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부흥과개혁사.
- 윤종석 역 (2008). **세계관은 이야기다**. Goheen, M. W. & Bartholomew, C. G.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IVP.
- 이강천 역 (2006).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Snyder, H. A. (1975). The Problem of Wineskins. 생명의 말씀사.
- 이우진 역 (2020). **2084_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 Lennox, J. C. (2020). 208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Humanity. 한국장로교출판사.
- 홍병룡 역 (2006). **완전한 진리**. Pearcey, N. (2004).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복 있는 사람.
- 홍병룡 역 (2007). **창조, 타락, 구속**. Wolters, A.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IVP.

3. 정기간행물

- 강성현 (2020). 마르틴 부버의 철학과 유대주의. **철학연구**, 128, 119-144.
- 김기현 (2022). 이원론 대 혼합주의 : 한국 기독교세계관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기독교철학**, 39, 7-38.
- 김기현 (2024). 구조와 방향에서 정사와 권세로. **기독교철학**, 39, 73-110.
- 박영진 (2026).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결정위임’ 현상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고찰. **신앙과 학문**, 31(1), 125-154.
- 조성표 (2014). 기독교세계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월드뷰**, 167, 50-57.
- 조현우·양경은 (2023). 인간의 의식, 자유의지, 도덕성의 진화 : 다니엘 데넷의 자연철학으로 본 인류의 진화. **철학연구**, 68, 205-237.
- Craig, C. J. & Kerr, I. R. (2021). The death of the AI author. *Osgoode Hall Law Journal*, 58(1), 31-86.

4. 석박사 학위논문

- 김영록 (2025).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관점에서 보는 국내 기독교세계관 운동.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원.
- 이창을 (2007). 구약성서의 창조기사와 고대 근동 문헌의 비교연구 : 바벨론 창조기사와 길가메쉬 서사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원.
- McCarthy, J. (2007).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Retrieved (26.05.01). from <http://www-formal.stanford.edu/jmc/>.

인공지능(AI) 시대와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 포스트크리스텐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논문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맞아,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인 ‘창조’ 교리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과거 기독교는 이성과 통치력 등 인간의 ‘기능적 우월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변증했다. 그러나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는 오늘날, 이러한 기능주의적 인간 이해는 기계화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방어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관점을 기초로 인간을 효용 가치로 평가하던 1세기 로마 제국에 맞서 대안 질서를 형성한 초대교회에 주목한다. 이들은 창조를 기원 논쟁이 아닌 ‘종말론적 새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을 정적 기능이 아닌 타자와 연대하는 ‘역동적 관계’로 이해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부버와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을 차용하여, AI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이 지적 변증을 넘어 환대와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적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됨을 지켜낼 수 있음을 제언한다.

주제어(Keywords): 기독교세계관, 인공지능(AI), 포스트크리스텐덤, 창조론, 하나님의 형상, 존재론, 종말론, 환대 공동체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인공지능(AI) 시대와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 포스트크리스텐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영록
		논찬자 (소속)	석종준 (서울대 기독교생 북클럽 지도목사)

이 논문은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기독교가 사회적 주변부로 밀려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이중적 위기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인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교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다.

특히 AI와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를 맞이하여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담론의 한계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단순히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기독교세계관 운동 자체의 패러다임을 ‘근대적 변증 → 포스트 크리스텐덤적 존재론 → 관계적 공공신학’으로 이동시키려는 매우 도전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담론의 중심을 ‘기원 논쟁’에서 ‘종말론적 완성’으로, 과학적/합리적인 변증에서 존재론적 관계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정체성을 기능적에서 관계적으로, 명제적 진리 선포에서 공동체적 실천의 수행으로, 크리스텐덤 담론의 방어에서 포스트크리스텐덤 공공 담론을 통한 소통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상당히 독창적이었다고 본다. 1) 창조론을 ‘기원 논쟁’이 아니라 ‘종말론적 새 창조’로 재배치한다. 2) 인간 고유성(정체성?)의 핵심을 기능적 측면이 아닌 관계적 측면으로 재정의 한다. 3) 공공 담론의 언어를 명제적 선언이 아니라 ‘환대와 타자 윤리’로 전환한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다음 세 가지 열매를 얻었다고 자평한다. 1) 기독교 세계관의 변증 패러다임 전환 : ‘기원’ 중심의 창조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 회복’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킴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이 과거에 얽매인 교리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갱신하는 실천적 동력임을 입증했다. 2)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고유성 : 기능이 아닌 타자를 향한 환대와 사랑이라는 ‘관계성’에 있음을 역설하여, 기술 지배 사회의 비인간화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철학적·신학적 방어막을 제공했다. 3)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공공 담론 형성 :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진리를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부버와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을 경유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배타적 종교 언어가 아닌 ‘보편적 윤리와 관계의 언어’로 번역해 냈다.

논찬자는 저자의 도전적 논문 기획과 창조적 시도를 통한 의미있는 결과를 동의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궁금 사안에 대한 답신을 구하는 것으로 논찬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저자는 “창조에 대한 과한 강조는 피조세계에 대한 긍정을 지나치게 한 나머지, 모든

악을 ‘인간의 동기, 즉 마음의 방향’이 타락했다는 논지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창조와 규범성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피조세계의 현상 유지를 정당화하는 보수화의 위험을 낳았고...” 논찬자는 밑줄 친 부분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기독교세계관 역사 속에서 운동의 한계는 ‘창조’ 담론의 강조가 아닌 ‘타락’, ‘구속’ 담론에 치우친 결과라고 본다.

2) 본론의 ‘1. AI 시대, 기독교세계관의 창조가 가지는 한계’의 말미 부분에 “기독교세계관운동의 ‘창조’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론적인 논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의 이유로 “.....후기 근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시장 안에서 생존해내기 위한 구별된 삶이라는 실천적 윤리와 내러티브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이다.”에서 밑줄 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근거로 “실천적 윤리와 내러티브에만 집중”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3) 또 저자는 이 논문의 배경을 ‘진재가 남아 있는’ 크리스텐덤 시대 이후 직면하게 된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상황을 설정하지만, 어떤 논거로 이 땅에 언제 크리스텐덤 시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 만 약 그렇다면 크리스텐덤 시대를 거치지 않은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설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4) 본론의 2. ‘(2) 창조교리와 하나님의 형상’에서 “....데이터 처리와 연산에서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피조 세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열린 오늘날, 이와 같은 기능주의적 사명 중심의 형상론은 존재론적 방어막으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한다....”의 부분은 논평자에게 허수아비 논증 (Straw Man Fallacy)처럼 보인다. 즉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피조 세계를 발전시킬 ‘기능적’ 가능성의 자리는 저자도 주목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 예수의 십자가 도와 사랑의 실천과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기능적’ 역할을 대체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기능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

5) 저자는 인간 고유성(정체성?)의 핵심을 기능적 측면이 아닌 관계적 측면으로 재정의 하면서, 비슷한 창조 담론, 즉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고 강조한 신학자들, 즉 칼 바르트, 에밀 부르너, 위르겐 몰트만, 톰 라이트, 스텐리 하우어워스, 하워드 요더, 미로슬라프 볼프 등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특별히 AI 시대의 도전과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 측면’에서 연계시켜 온 연구로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 온 신학자 노린 허츠펠드(Noreen Herzfeld)가 논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6) 마지막으로 저자는 부버와 레비나스의 관계 담론을 통해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에 인간의 고유성, 교회론을 AI 시대의 도전과 연결하는 대안을 모색했는데, 혹시 이것으로 “교회가 진리 공동체에서 윤리 공동체로 축소되는 것 아닌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체적 접근(이성, 양심, 자유의지) & 기능적 접근(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또는 대리자)을 관계적 접근으로 대체가 아니라 모두 함께 공존시키는 보완 담론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